

최종 선택 앞둔 광주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긴장 고조

상임위원장 후보 투표 결과 무더기 반대표 나와 본투표 결과 장담 못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후보 8명 중 3명 복구갑 편중...지역구 안배 필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차 예선 격인 내부 경선을 통해 제9대 광주시의회 후보단·상임위원장단 후보를 선출했지만, 정작 결승인 본회의 투표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본회의 선거에서도 '일방적 결과'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진행된 일부 위원장 후보 투표 결과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면서 본투표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때문이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3일까지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는 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른다. 이어 4명의 상임위원장단 선거는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치러질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는 의장 후보 신수정(북구3)·제1부의장 서용규(비례)·제2부의장 채은지(비례)·의회운영위원장 정다은(북구2)·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북구1)·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광산구1)·산업건설위원장 박필순(광산구3)·교육문화위원장 명진(서구2) 의원 등 총 8명

이다. 본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반 이상 표를 얻으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9일 열린 민주당 당내 선거 과정에서 총 21표 중 반대 7표, 무효 1표 등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반대 8표를 얻은 위원장 후보도 있어 본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장 후보들도 반대표가 적게는 3표에서 많게는 7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는 일단 오는 11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절반 표를 넘지 못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같은 날 해당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투표에서도 해당 후보가 과반 표를 받지 못한다면 후보 등록을 다시 받고 일정을 조정해 재투

표하는 방식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내 후보 선출 전 합의문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수행한 의원은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직을 제외한 다른 의회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본선거에서 기관·무효표가 민주당 경선 당시 반대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위원장 낙마에 따른 민주당 내 대체 인력풀이 크게 줄어든 만큼, 전략적인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뽑은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낙마한다면 광주시의회 안팎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데도 민주당이 사전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

한 뒤 압도적 표 차이를 앞세워 사실상 본회의 투표 결과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의 지역구 편중도 심각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후보 8명 중 3명이 복구갑 지역구 의원이며 동남갑, 동남을, 서구를 복구을 지역구 의원에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후보 선출 과정 속 시장 차원에서 지역구 안배 등을 고려해줘야 하는데 선수(選數)로만 분류를 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민주당 내 경선이 아직 본투표가 진행된 것은 아니니 지역구 배분 등을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을 활용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 등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착한소비 확산' ...광주시, 사회적경제주간 운영

14일까지 경제쇼핑몰서 할인 매칭데이·콜로키움 등 행사 다양

광주시는 7월 첫째주 '사회적경제주간'(1~6일)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착한 소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 사회적경제쇼핑몰 '가치사세마켓'(https://www.gachisase.kr/)에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선착순 100명에게 2만원 이상 주문하면 1만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광주시 공공기관 및 의제를 제안한 단체·개인 80여명은 4일 오후 2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가치 온(ON) 같이 고(GO)'를 연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개인 및 지역의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매칭의 장이다.

5일 오후 4시에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 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53회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이 열린다.

조석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박상하 나주대학교 지역사회복지과 교수, 안정민 광주마을기업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변화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을 위한 현황 진단과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jsec.kr/)을 참고하거나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전략팀(062-531-6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의료취약지 ICT 활용 만성질환 관리 강화

앱 통해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등

전남도가 의료취약지의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2차년도 실증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영양·운동·간호 영역별 상담 월 1회, 월간 보고서, 매일 건강생활 실천 미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공간적·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올해 2차년도 실증연구에서는 의원과 보건

소가 협업하는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다. 참여 기관은 전국 22개소 중 전남이 10개소(45%)로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다.

지난 4월부터 전남은 도내 고혈압·당뇨 환자 175명에게 혈압기 150대와 혈당기 92대를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권욱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전남은 최근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등 보건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올해 진행한 실증연구의 효과가 입증되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일경험 청년 모집

16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1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경험에 참여할 제16기 드림청년 470명을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 대표 청년 일자리사업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7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39세(1984년 8월2일생~2005년 8월1일생)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7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공통교육과 유형별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등 연계활동

에도 참여한다.

특히 하반기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 진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별도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는 청년과 사업장의 일경험 연계를 위해 16기 드림터(참여 사업장)로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주), ㈜해양에너지, ㈜무등기업 등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90여곳을 모집했다. 참여 드림터에 대한 정보와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날부터 16일 오후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면접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26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